

2011 문화계 결산

① 미술

올해 이 지역 문화계는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작가들의 활발한 해외 활동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 출신 소설가 정유정씨의 '7년의 밤'(은행나무 펄버)이 '올해의 책' 대상에 뽑히는 등 문학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광주문화재단이 제작한 '자스민 광주'는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다.

지역 문화계의 지난 1년의 성과와 발전 과정을 ▲미술 ▲공연 ▲문학·문화재 ▲문화행정 등 4회로 나눠 돌아 본다.

▶올 한 해 지역 미술계는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사진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모습. (광주일보 자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경쟁력 갖췄다

미술계 가장 큰 성과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세계 디자인계에 의미 있는 전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광주 도심 곳곳을 물들인 어번폴리도 광주의 아름다운 미술 자산이 됐다.

한 번 미술 비엔날레만을 개최했던 이들 국가들이 미술과 디자인비엔날레를 번갈아 여는 광주를 벤치마킹, 디자인비엔날레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어번폴리' 국내외 건축계 관심, '키스 해링'전 등 인기

젊은 작가들 전시 기회 감소 다양한 지원책 마련돼야

◇디자인 전시를 이끌다=이번 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는 25만7000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52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동안의 완성품 중심의 전시에서 탈피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의 근본적인 의미와 우리 생활 속 디자인의 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모 전시가 관람객을 행복으로 안내했다. ◇젊은 작가들은 여전히 '추위'=무안 군립 오송우미술관과 함평군립미술관이 문을 열어 문화 소외지역에 단비같은 소식 전해졌고, 광주 외재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 등을 열었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잇따라 작품을 선보였고,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삽화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해 전시하는 등 활동의 폭도 넓혔다. 순천만의 환상적인 풍경을 추상으로 풀어내고 있는 서양화가 김일권(전남대 여수캠퍼스 교수)씨도 미국 뉴욕 맨해튼 록펠러플라자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웃음폭탄 그녀들이 돌아왔다

'뮤지컬 년센세이션' 24~25일 문예회관

유쾌한 수녀님들이 돌아왔다. 뮤지컬 '년센스'의 다섯번째 시리즈 '뮤지컬 년센세이션'이 24~25일 오후 3시·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지난 1991년 한국에서 초연된 '년센스' 시리즈는 지금까지 8000여회 공연, 300만명 관객 동원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중 한편이다.

이번 시리즈의 무대는 도박의 도시다. 라스베이거스 무대에서 공연을 해보면 거액을 기부하겠다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수녀들은 공연을 준비한다. 하지만 화려했던 과거 추억에만 빠져 있는 수녀, 솔로 무대에만 눈독을 들이는 수녀, 카지노에서 짝꿍을 터트린 수녀 등 제 일만 챙기기에 바쁜 수녀들 덕에 공연준비는 꼬여만 간다.

원장 수녀역으로는 가수 해은이와 뮤지컬 '명성황후'의 해로인 이태원이 더블 캐스팅됐으며 하버트 수녀역의 이정화·정영주, 로버트 앤 수녀역의 황보, 메리 폴 수녀의 송은이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티켓 가격 8만8000원~6만6000원. 문의 1600-1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 문화유산이 오롯이

22~23일 '디지털콘텐츠 개발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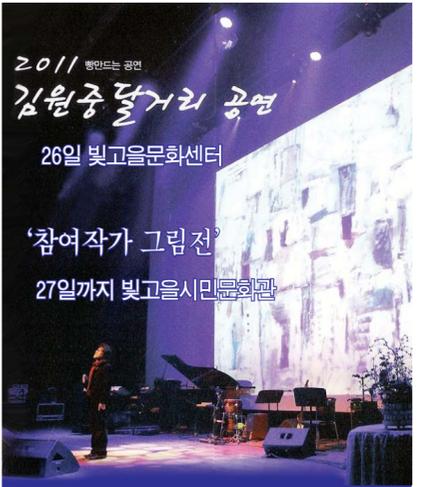
광주지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사)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이사장 박경환)은 오는 22~23일 광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광주문화재 디지털콘텐츠 개발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박경환·김태성·김상국·국경표·배향아·정우성·정승희씨 등이 참여해 지역 문화유산을 오롯이 담아낸 작품을 전시한다.

이들은 양림동 우일선 선교사 사택, 오원기념관, 수피아홀, 최승호 가옥, 이장우 가옥과 증심사, 동오층서탑, 병천사 등 문화재의 등지의 문화 유산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선사한다. 문의 062-363-08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상국 작 '우일선 선교사 사택'



'참여작가 그림전'

27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3월에는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4월에는 빨간 자전거와 은행나무가 어우러졌다. 8월에는 환한 웃음을 터트린 여인 사이로 반딧불이 반짝였다. 10월에는 붉은 흥시감이 주렁 주렁 매달렸다.

가수 김원중씨가 올 3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열었던 '뽕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는 작곡가와 클래식 연주자, 국악인, 가수, 시인과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 손님이 만들어낸 행복한 공연이었다.

무대를 더욱 빛냈던 건 광주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이 작업한 그림들, 커다란 영상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낸 그림들은 단순한 무대 배경 장치를 넘어서 또 다른 감동을 전했다. 공연장은 금세 컬러리로 변신했다.

'가수 김원중 달거리 공연 참여작가 그림전'이 20일부터 27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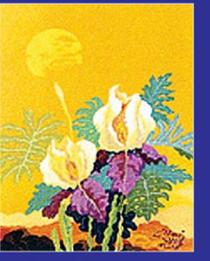
'살 한뼘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움', '상처', '보듬어 주기'... 매달 김씨가 내놓은 주제에 대해 작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화답했다.

참여작가는 고근호·김해성·박태후·신양호·오건규·임남진·조진호·채경남·최재영·한희원씨다. 주홍씨의 샌드아트메이킹과 리얼전씨의 사진도 전시된다.

한편 달거리 2011년 마지막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달 테마는 한해를 보내며, 새로운 해를 맞는 의미를 담아 '용, 너 잠만났다(잠가라 토끼야)'로 정했다. 초대 손님으로는 여수 지역 초등학생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달 무대를 맡은 조각가 고근호씨가 유쾌한 조각작품들은 내놓았고 윤진철·김현옥·주홍씨 등 늘 무대에 섰던 이들이 마지막 공연도 함께한다.

입장료는 따로 없으며 공연을 관람후 모금함에 정성을 보태면 된다.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된 뽕공장에 보내진다. '달거리'는 2012년 3월부터 다시 이어진다. 문의 010-2943-8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재영 작 'Nature A'

Advertisement for '다자녀 행복 카드' (Multi-child Happiness Card) by Jeolla Namdo. It features a family photo and a child with a balloon. Text includes: '우리 집만의 행복한 특권', '3명 이상 자녀 가정을 위한 다자녀 행복 카드', '전라남도에서 양육비 경감을 위해 드리는 문화·경제적 할인 혜택', and contact information: http://jnhappy.bccard.com, 061-286-5853.